

## 계관일언(鷄冠一言)

창/간/사

# 월간양계 창간 35주년을 맞이하여



최 준 구 본회 회장

**월**간양계가 어느덧 창간 3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간 본회는 물론 양계산업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양계인 여러분과 관련업계 종사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월간양계는 지난 1969년 양계업의 태동기에 태어나 정보를 갈망하던 양계인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전달하고 양계산업의 발전을 꾀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월간양계가 양계인들의 동반자로서 지금까지 한번의 결간없이 발행될 수 있었던 데에는 물심양면 도움을 주신 양계인 및 관련인들의 관심과 노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간양계가 창간될 무렵인 1960년대에는 서울 근교를 중심으로 열리는 양계강습회와 1년에 1차례 전국을 순회하며 열리던 양계강습회가 있었으나 전국의 많은 양계인들이 정보를 습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월간양계의 탄생은 양계산업 발전의 활력소가 되었고 양계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양계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양계산업은 질적, 양적인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러나 세계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따라 1997년 7월부터 모든 양계산물이 개방을 맞게되었고, 최근에는 FTA, DDA협상 등 개방화 물결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양계산업의 주변 여건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월간양계는 양계인들에게 국내외 소식은 물론 사양, 질병 관리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수익

증대와 국제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면서 변화되는 주변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달해 오는데 주력해왔습니다.

35년동안 월간양계는 초창기인 60~70년대는 양계 사양관리에 대한 기술 전달에, 80~90년대는 양계의 규모화, 자동화 등 양적인 발전에, 2000년 이후에는 소비자 위주의 양계산물 생산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육종의 발달과 더불어 사양관리 기술이 항상 강조되었고, 질병문제는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의 축산업 흐름은 천환경 축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웰빙과 건강을 중시한 소비자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양계산물을 생산하는데 주력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르러 계란에 대한 항생제 문제가 언론에 거론되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닭고기에서의 항생제 검출 파동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상승세에 있던 육계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양계업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 외국에서는 농장내 HACCP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농장내 의무적으로 계란에 대한 살모넬라 검사를 실시해 살모넬라 양성반응이 나타날 경우 원란으로는 소비자에 판매하지 못하도록하는 규정을 제정해 실시하는 등 양계장의 위생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2년 “식용란에는 살모넬라가 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농림부령을 규정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닭고기의 경우도 2007년부터 포장 닭고기 유통을 추진하는 등 유통개선과 소비자위주의 양계산물 생산에 노력하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이 양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고개를 드는 경향을 보이면서 양계업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내 양계산업은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청정지역임을 인정받아 홍콩으로의 수출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으나, 유럽은 물론 남미 등에서의 수출공세가 강하게 진행되면서 국내 닭고기 산업이 다시 위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풀어가야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위에서 언급한 사항은 양계인들이 간과해서는 안될 사안인 만큼 양계인들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대처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월간양계도 양계인들의 앞에 서서 양계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해주는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한번 월간양계지의 창간 35주년이 있기까지 물심양면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욱 새롭고 알찬 정보전달지가 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